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정부·여당 '반대'

정부·여당 "막대한 예산 소요 예상...편성 일러" 야당·학계 "정부차원에서 노인 질병 부담 낮춰야" 대상포진 환자 60대 이상 23.5% 증가...80대 최다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화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여야는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신상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은 "높은 백신 접종비용으로 인해 노인들이 극심한 대상포진의 고통을 참고 있다"며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보건당국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확인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NIP 도입 예산 편성은 이르다"고 맞섰다.

여야가 각을 세우면서 결국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계에선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휴정 대한통증학회 기획이사(가톨릭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성모병원 통증센터장)는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심각한 질환"이라면서 "특히 50세 이상에서 급증하고 평생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미리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접종률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내 대상포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가격장벽이 주요인으로, 정부에서 대상포진 백신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해 백신 접종률은 높이고 질병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를 일으킨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가 몸 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년층의 질병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원 기간과 총 의료비도 증가했다. 81세 이상 환자는 입원 기간과 의료비가 각각 12.94일, 약 282만4000원으로

실제로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약 15% 증가했고 요양급여도 같은 기간 약 618억원에서 약 851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60대 이상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3.5% 가량 증가했고 요양급여도 약 42% 늘어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원 기간과 총 의료비도 증가했다. 81세 이상 환자는 입원 기간과 의료비가 각각 12.94일, 약 282만4000원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컸다. 20~40세 환자의 입원 기간(7일)과 의료비(142만2000원)와 비교하면 입원기간이 2배 정도 길고 의료비도 2배 가량 더 많이 들어간다. 김영식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예방효과, 안전성과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할 경우 약 4조 7271억원(인당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한 영국의 경우에도 도입 후 대상포진 발병률이 33% 가량 감소했다.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김 교수는 "초기검진과 질병예방이 모두 중요함에도 국가검진에 쓰는 비용에 비해 예방백신에 사용하는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NIP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성인예방접종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노인 등 질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곳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동문구를 비롯해 인천(강화·옹진군), 강원(황성·철원군), 충북(괴산군), 충남(공주·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임실·순창군) 등에서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건강한 중년 위해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은?

50대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필수 인플루엔자 매년 10월 접종 적당

과거에는 예방접종이 소아청소년의 전유물이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개인에서의 감염병 발생 자체를 막아 국가 전체적인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

성인의 경우는 다르다. 감염병의 발생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발병을 하더라도 중증 감염병으로의 진행을 상당수 줄여 입원과 사망률을 낮춘다.

중년기는 일반 성인기와 다르다. 적절한 관리를 해야 각자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시기다. 또 이 시기는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법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그렇다면 중년기에 필요한 예방접종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았던 성인에서 신경절에 잠복 감염되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의 발생률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중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발생률 자체가 높을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의 피부병변이 치유된 뒤에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포진후 신경통'이 오랜기간 지속돼 고령환자에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포진후 신경통은 오랜기간 치료해도 6개월이상 잠기다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 과정에서 약물중독,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 발생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심각성이 있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

은 모 두 대상포진의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종대상이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전 출생자는 대부분 수두를 앓았다고 간주되며 특히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적절하다. 대상포진 백신은 백혈병, 림프종, 골수 침범이 있는 악성종양 환자, 에이즈환자, 임신부 등을 제외하고는 접종 가능하며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에 맞어도 안전하다. 다만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에는 약 1년내 재발이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년이상 경과한후 접종받는 것이 좋다. 다른 동반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중이거나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미리 주치의와 상의후 접종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도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감염증(독감)은 흔한 호흡기 질환으로 대부분 쉽게 호전되지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중증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고 입원 및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 많다. 단순 감기와 인플루엔자 감염증(독감)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단순 감기(상기도 감염)를 막지 못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에 포함된 3~4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에만 예방 효과가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아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및 여러 감염병 전문 단체의 합의에 따라 백신에 포함할 아형을 결정하므로 그 백신에 포함

된 아형에 대해서만 예방효과가 있다.

김중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의 예방 효과는 약 6개월간 지속되며 유행 시기는 대부분 12~1월이지만 최근에는 2~4월까지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년 10월에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년층에서의 예방효과는 매우 좋아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 아형이 일치하는 경우 약 90%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맞아야 하는 접종"이라고 말했다.

파상풍도 예방접종 하는 게 좋다.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만드는 신경독이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의 긴장성 연축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중장년층이 다쳐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 많이 발생하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감염병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접종률은 아직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지침에 따르면, 1967년 이전 출생자는 최근 10년 내 파상풍 관련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없는 경우 3회 접종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1967년 이

후 출생자는 최근 10년 내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한 차례 접종받고 이후 10년에 한 번씩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폐렴사슬알균도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폐렴사슬알균 백신은 단순 폐렴 보다는 중증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증의 감염증에는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폐렴, 수막염, 중증폐렴 등이 있다. 특히 장년층에서 효과적이며, 침습성 감염증 및 합병증을 50~6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중증감염증이 발생하였을 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확률이 낮아지며,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폐렴이 통원치료로만 회복될 확률도 높아지는 등, 감염증의 발생 자체를 막는 목적보다 병의 심한 정도를 한 두 단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이해하면 쉽다. 특히 초고령자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